

마르 1,14-20 (2024/1/21, 연중 제 3 주일, 하느님의 말씀주일)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갈릴래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누군가는 그냥 흘려듣고 누군가는 ‘또 다른 예언자가 나타났나?’라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과연 누구길래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어부인 시몬과 안드레아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라며 부르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또 다른 어부인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동생 요한도 마찬가지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네 명의 어부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시몬과 안드레아는 자신들의 생업에 필요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이들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놀랍게도 가족, 재산 등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재물이냐 하느님이냐’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 곧 주님과 함께 하면서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삶, 제자들은 그러한 삶에 희망을 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나섰을 것입니다.

오늘의 성화 묵상



<두초 디 부오닌세냐,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부르심, 1311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업 중이던 시몬과 안드레아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나요? 또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시몬과 안드레아는 그물을 당기던 중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데, 예수님과 형제의 모습, 물고기, 노동이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 형제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양성을 통해 ‘사람 낚는 어부’로 변해갑니다. 그러한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